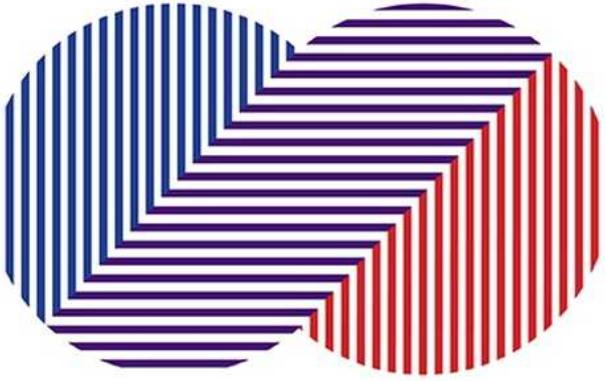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요일의 공감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8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진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p> <h2>공감하는 능력</h2> <p>E M P A T H Y</p> <p>로만 크르즈나릭 강병화 옮김</p>  <p>마음의 열쇠·관계의 중심·변화의 시작점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6가지 습관</p> <p>더퀘스트</p> </div> <p>2019. 03. 28</p> <p>『공감하는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만 크르즈나릭 / 더퀘스트 / 2018. 11. 20 ❖ 도서 선정 이유 : 공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공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공감 방법을 각자의 일상생활에 적용해보기 위함.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6가지 습관 중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골라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Q. 이해를 공감이라 할 수 있는가? 							

대화의 기교 연마하기

오** (**학과)

▷ 세 번째 요소 : 가면을 벗고 취약성 끌어안기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용기의 가장 큰 척도다." (p. 203)

"취약성 노출의 위험을 감수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p. 206)

취약성 노출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발표자가 긴장한 것을 애써 감추고 덜덜 떨며 발표를 할 때와, 발표에 앞서 '제가 사실 매우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떨립니다.'라고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밝히고 나서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발표자가 실수를 연발하여도 대부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따라서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점 자랑 대회

참가 조건 : **학과 신입생

대회 방식 : 자신이 가진 단점 중 한 가지를 골라 학우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그 단점이 가진 장점, 단점으로 인해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 등을 소개한다.

기대 효과 : 참가자 본인의 단점을 자신 있게 소개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우들은 평소 같이 공부하는 학우의 숨겨진 자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토의하기

Q.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A. 그렇다.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상대방의 말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게 한다. 또한 평소 친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을 확률이 높지만, 낯선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방법이다.

Q. 이해를 공감이라 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공감을 이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공감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해하면서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불교라는 다른 종교의 존재와 그것을 따르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만 그것에 공감해 절을 다니며 부처를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안락의자 여행자

오**



다섯 번째 습관 : ‘안락의자 여행자’가 되어본다.

‘안락의자 공감’법이란 자기 집 거실에 앉아서도 해볼 수 있는 공감여행 방법이다.

이 공감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공감방법보다 혼자, 편리하게, 언제든지 공감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평소 우리가 자주 해오는 공감능력이라서

어렵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안락의자 공감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 ▶연극과 영화
- ▶사진
- ▶문학(소설)
- ▶온라인 문화(디지털)

★실제로 공감능력 쌓아보기

▶연극과 영화 : 공감영화 클럽 만들기!!

→ 친한 친구들을 모아서 공감이라는 주제에 따라 모두가 흥미를 가질 영화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서로 느낀 점에 대해 공유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라서 겪는 힘들 일들에 대해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서로가 느낀 공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Q.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A. 나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말을 할 때면 낯을 가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 또한 말 그대로 낯선 사람이기에 경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과의 속 깊은 이야기들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해를 공감이라 할 수 있는가?

A. 나는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고 본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4월 17일) 홍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나는 이해와 공감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천에 양수발전소를 지을 것인가를 두고 홍천 주민들이 모여 토론을 하였는데 홍천 주민들은 양수발전소에 대해 찬반이 극심하게 갈렸다. 찬성주민들은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 생기는 단점들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반대주민들에 대한 공감은 하지 못했고, 반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은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찬성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즉, 이 사례를 통해 나는 이해를 한다고 해서 꼭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암흑 속의 일상

박**

세 번째 습관 : 새로운 체험에 뛰어든다.

- 141p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 인정되어왔다.”
- 153p “마지막 도전으로 ‘감각 바꿔보기’를 해볼 수 있다. 감각 기능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체험 내용 :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카페에 가서 눈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로 음식을 먹고 보드 게임을 하며 시각 장애인을 체험한다.

체험 장소 : 신촌 눈탱이감탕이 카페

체험 날짜 : 2019.4.28.

선정 이유 : 영화배우 대니얼 데이루이스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크리스티 브라운 역을 맡는 동안 촬영기간 내내 휠체어에서 지냈고, 티타임에도 자기 캐릭터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 존 하워드 그리핀은 인종 간의 경계를 넘기 위해 피부에 가죽염색약을 발라 흑인 행세를 하고 6주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했다. 이처럼 어떤 일에 공감하기 위해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사회적 약자 중 시각 장애인을 공감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Q.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A. 도움 된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계속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게 되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Q. 이해를 공감이라 할 수 있는가?

A. 할 수 있다. 이해의 정의는 깨달아 앎.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감은 남의 감정, 의견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것에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3월 28일

참가자대표 : 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요일의 공감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4월 11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8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							
	<div data-bbox="667 745 1203 153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80 1592 647 1621">2019. 04. 11</p> <p data-bbox="480 1632 652 1662">『공감의 시대』</p> <ul data-bbox="480 1675 1398 2004"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란스 드 발 / 김영사 / 2017. 08. 31 ❖ 도서 선정 이유 : 영장류를 비롯한 동물들에게서 관찰되는 공감 행동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 공감에 대해 알아보고, 생물학적 접근을 통해 공감을 연구하기 위함. ▶ 동물의 공감 행동 중 인간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자세히 비교 조사해본다. ✓ Q.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공감은 필수적인가? ✓ Q.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정 진화로 인한 것인가? 							

공감과 동정의 시작점

오** (**학과)

▷ 몸이 몸에게 하는 말 : 대응 문제

“호모사피엔스’는 유난히 동료에 의해 아주 쉽게 한쪽 감정에서 다른 쪽으로 동요되는 특징이 있다. 정확히 바로 이것이 공감과 동정이 시작 되는 지점이다.” (p. 76)

감정은 전염된다. 시덥지 않은 일임에도 앞사람이 웃고 있으면 괜시리 따라 웃게 되고, 슬픔에 빠진 친구를 보면 내 일이 아님에도 눈물이 난다. 행동도 순식간에 퍼져간다. 마치 춘천에 영화관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친구들을 따라 손을 들어 순수한 새내기를 유혹하는 사기꾼에게 영화 관람권을 샀던 몇 달 전의 나처럼 말이다.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보면 친구들에게 꼭 보여준다. 내가 그 글을 보며 웃었듯, 나의 감정에 공감해줄 것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상대로 친구들은 웃음이 터지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또 한 번 웃게 된다. 일파만파 쉽게도 퍼지는 감정은 우리를 공감으로 연결지어 준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침울해지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남들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인간과 동물의 유사한 공감 행동

집에서 나와 타지생활을 하는 나는 이따금 고향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한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할 때면 둘 중에 한 명은 꼭 하품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잠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꼭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품이 나온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하품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당신의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침팬지도 다른 침팬지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 따라 하품을 한다. 실험 결과, 심지어 실제 침팬지가 아닌 하품하는 침팬지 모습의 애니메이션을 보고도 하품을 했다. 하품 전염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깊숙이 배어 있는 무의식적인 동일화의 힘을 보여 준다.

● 토의하기

Q.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공감은 필수적인가?

A. 그렇다. 공감은 생물이 생존하는 데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무리지어 있는 토끼들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도망치듯 뛰기 시작했다면, 나머지 토끼들은 일단 무조건 따라 뛰어가야 한다. 첫 번째 토끼가 무언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 본능은 그동안 크고 작은 집단의 생물들의 생존에 도움을 줘 왔을 것이다.

Q.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정 진화로 인한 것인가?

A. 그렇다.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는 영장류에게서도 인간의 공감 행동과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 따르면 그들의 최종 진화 단계인 인간에게서 가장 풍부한 공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외형과 두뇌를 따라 공감 능력 또한 서서히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이익에 대한 재조명

오**

▶ 동물의 공감 행동 중 인간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자세히 비교 조사해본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인간이 동물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정말 동물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책에서 <자기 이익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으면서 말을 못하고, 감정표현이 인간만큼 뚜렷하지 않은 동물일지라도 공감능력만큼은 인간과 다를 게 없었구나. 라고 느꼈다. 특히 동물의 이기적인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본능을 기반을 둔 행동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배가 정말 고프면 애민해지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정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등등 인간과 동물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표현이 생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인간과 동물의 공감 능력 및 행동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책이었다.

Q.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공감은 필수적인가?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공감은 필수적이다. 책에서 크로포트킨이 시베리아를 여행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혹한기 또는 척박한 기후에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들은 하나로 뭉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공감을 이해해야지만 서로를 돕고 상생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정 진화로 인한 것인가?

인간의 공감 능력은 진화로 인한 것이 맞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로 빗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숭이다. 따라서 원숭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인간이 할 법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을 보면 싸움상황에서 원숭이의 행동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수박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는 암컷들 사이에서 수컷은 두 암컷사이에서 두 팔을 내밀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이 행동을 보면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는 중재자의 행동이 떠오른다. 즉, 인간의 공감 능

력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 진화되어 현재의 공감능력이 쌓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소한의 공감

공감의 시대 / 프란스 드 발 / 최재천

박**

▶ 동물의 공감 행동 중 인간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자세히 비교 조사해본다.

“사소한 일이라도 남을 배려하기 위해선 감정 이입에 입각한 관점 바꾸기를 해야 한다.”

- 저비용 이타주의 : 자기에게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

우리는 언제나 저비용 이타주의 행동을 한다. 공항에서 누가 탑승권을 떨어뜨린 걸 알려주는 일은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내 동료 탑승자를 엄청난 좌절로부터 구해준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방금 지나온 문을 잡아주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으려는 사람을 위해서 옆으로 비켜주기도 하며,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 때 도와드리기도 한다. 인간이 저비용 이타주의를 행하는 것처럼 동물 또한 저비용 이타주의를 행한다.

인간의 저비용 이타주의 행동과 가장 비슷한 예시로 침팬지의 털 고르기가 있다. 우리는 쉽게 원숭이나 침팬지, 유인원이 자신의 털을 고르고 다른 이의 등을 긁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긁는 것은 보통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놀라운 점은 다른 이의 등을 긁어주는 것이다. 긁어주는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 부모님께 배운 것도 있겠지만 아마 직접 겪어보고 기분 좋은 호의를 느낌으로서 그런 습관이 강화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침팬지들 사이에 등 긁기가 퍼진 방식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한 유인원이 우연히 다른 유인원의 등을 긁어주었다고 상상해보자. 그게 굉장히 좋아서 세 번째 유인원, 아마 우두머리처럼 자기가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 유인원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이는 가능한 일이지만 관점 바꾸기가 있어야 가능한 설명이다.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이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

Q.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공감은 필수적인가?

생물을 두 가지, 인간과 나머지로 나눈다면 인간은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선 공감이 필수적인데, 나머지 동식물들은 그렇지 않다. 가령 나무들은 해충이 자신에게 공격을 가할 때 화학 물질로 주변 나무들에게 주의를 준다. 이것은 공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포식자를 피해 단체로 행동하는 동물들은 서로에게 공감을 해서 단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의해 ‘흩어지면 죽고 모이

면 산다.'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감은 인간에겐 필수적이지만 나머지엔 필수적이지 않다.

Q.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정 진화로 인한 것인가?

그렇다. 유인원과 구별되지 않은 시절부터 지금 현재의 인간이 될 때까지 인간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진화를 해왔다. 그 과정 중 만약 인간이 공감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했다면 갈등이 되고 그것이 점점 커져 싸움이 되어 결국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저비용 이타주의 행동이 유인원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화로 인한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 11일

참가자대표 : 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요일의 공감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8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							
	<div data-bbox="643 745 1235 103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67 1066 1211 1615"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480 1653 651 1682">2019. 04. 25</p> <p data-bbox="480 1697 683 1727">『다가오는 말들』</p> <ul data-bbox="480 1742 1401 2060"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유 / 어크로스 / 2019. 03. 07 ❖ 도서 선정 이유 : 언어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 ▶ 지금까지 살아오며 들었던 말들 중 기억에 남는 말을 골라 그 때의 상황을 담은 짧은 글짓기를 해본다. ✓ Q.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인가, 역지사지인가? ✓ Q.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인가? 							

말하는 대로

오**

▷ 기억에 남는 말을 담은 글짓기

“**아, 엄마는 내가 웬지 합격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면접장을 나와 온몸의 긴장이 다 풀려 맛도 느껴지지 않는 닭갈비를 우물대는 나에게 엄마가 건넨 말이다. 인생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겨울이 또다시 있을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음을 똑똑히 보여주듯 그다지 치열하지 않게 준비했던 수능은 처참히 말아 먹었고, 원서 여섯 개 중 네 개가 날아갔다. 심지어 남은 두 개 중 하나는 상향 지원이었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카드를 그토록 아슬아슬하게 부여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면접을 그다지 못 본 것도 아니면서 괜시리 의기소침해져 있던 나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다. 정말 말하는 대로 될 것만 같았다. 말이 씨가 된다는 흔한 말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믿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해 12월, 나는 엄마의 말대로 대학에 붙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고, 몇 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한다. 발 없는 말은 천 리를 가고, 뽀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어쩌면 행동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하기이다. 말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한 능력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같이 행복해지는 데 써야 할 것이다.

● 토의하기

Q.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인가, 역지사지인가?

A. 역지사지이다. 단지 상대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공감하기 어렵다. 귀 기울여 들었음에도 속으로는 상대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Q.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인가?

A.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이 자신만 힘들고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상대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푸념을 늘어놓는다면 더 큰 짐만 안겨 주는 것이 될 테니 조심해야 한다.

영혼 없이 맺는 말들

오**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들 중 기억에 남는 말을 골라 그때의 상황을 담은 짧은 글짓기를 해본다.

“와~ 오** 말에 영혼 없다ㅋㅋㅋ” 중학교 1학년 한참 낮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친구들과 친해져보겠다고 겨우 감탄사를 뱉은 나에게 돌아온 말이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도 상처로 다가오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말에 영혼이 없다.”, “진심이 없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나는 이 말을 싫어하게 되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친구들에게 하는 표현들이 늘 딱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낮을 많이 가리고, 친한 친구라도 표현의 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것뿐이었다. 언제 한번은 친구의 고민 상담을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친구의 고민은 나에게도 너무나 큰 고민이었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말하는 내내 “아..그랬구나.” 밖에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내 말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기 싫어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다보니 나의 말투가 나의 행동이 잘못된줄 알았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말수가 더 적어지고, 친구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까지 되어 버린 적이 있었다.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가 “네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서 괜찮아.” 라는 말을 나한테 건넨 적이 있었다. 그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 나는 더 이상 말 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영혼없다라는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교에 온 이후에도 여전히 영혼없다는 말을 듣지만 전보다 힘들지 않는 건 그때 그 친구의 위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Q.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인가, 역지사지인가?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 다양한 유형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다. 같이 화를 내줘야하는 친구, 가만히 들어줘야 하는 친구, 해결책을 줘야하는 친구 등등 각자 공감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공감의 공통점은 경청을 해야 같이 화를 내든, 해결책을 제시해주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Q.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인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도 공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굳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괜히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다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정하는 친구들

박**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내 소중한 친구 2명!! 잃지 않아, 너희뿐이야”이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끊고 미안해서 문자로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라고 보냈더니 온 답장이 저 말이다.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진저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받아주고 표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들은 것보다 대학 친구에게 들으니 더 감동이었다. 만난 지 약 세 달째지만 저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친구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점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인가, 역지사지인가?

경청이다. 우선 경청이 선행되고 역지사지가 후행되어야 한다. 공감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을 해야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인데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경청이 선행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먼저 경청해야지 뒤의 모든 일이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Q.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인가?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픔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나도 아픈 이야기를 너한테 얘기했으니까 너도 해도 돼.’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한다. 나도 이야기를 잘 못하는 친구에겐 먼저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상황이 많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상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4월 25일

참가자대표 : 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요일의 공감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9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8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2019. 05. 09</p> <p>『아몬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원평 / 창비 / 2017. 03. 31 ❖ 도서 선정 이유 :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읽으며 공감 능력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함. ▶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팀원들과 감상을 공유해 본다. ✓ Q.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Q. 주인공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 독후감 작성

감정을 느끼지 못 하는 사람의 심정은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백퍼센트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뻐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항상 동떨어져 있는 느낌일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선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짓는 등의 훈련을 통해 나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고향에 의해 할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다. 하지만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재는 그 순간에도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곧 죽을 아내를 위해 잃어버린 아들 행세를 부탁하게 되고, 같은 반에 전학 온 진짜 아들 '곤이'를 만난다. 그 사실을 알아챈 곤이는 윤재를 괴롭히지만 곧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 윤재가 서서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감정을 과하게 느껴도 사람이듯, 감정을 느낄 수 없어도 사람이다. 누구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리에 끼려면 서로 비슷해져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토의하기

Q.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이해하기이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가 감정을 느낄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 곤이 감정적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다. 감정은 느낄 수 없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 테니까.

Q. 주인공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A. 그렇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 애초에 세상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누가 진정 평범하다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남들과 어울릴 수 있고 모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윤재는 기꺼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하지도 비정상적이지도 않은, 남들과 똑같이 개성있는 사람일 뿐이다.

아몬드

오**

▶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팀원들과 감상을 공유해본다.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이다.

열여섯 소년, 윤재는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한다.

이 병은 “감정 표현 불능증” 또는 “알렉시티미아”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

어났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

스마스이브이던 열여섯 번째 생일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 가족을 잃었다. 그렇게 세상

에 홀로 남겨져 살아가던 윤재 앞에 그냥 세상이 싫고, 분노로만 가득 찬 '곤이'가 나타

난다. 곤이는 처음만난 윤재에게 화를 쏟아내지만, 감정의 동요가 없는 윤재 앞에서 오

히려 찢찢매고 만다. 윤재는 어쩐지 이런 곤이가 밋지 않고, 오히려 궁금해진다. 그 후

두 소년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 가며 어느새 윤재에도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란 희귀병을 앓는 윤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가운 눈초리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Q.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책 속 윤재를 바라보며 만약 내 주변에 윤재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친구인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할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닌 상대

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다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주인공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책을 읽다보면 '평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엄마와 할머니, 윤재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 윤재의 엄마는 윤재를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윤재에게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 윤재가 '남들과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굴 기준으로 잡는 걸까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나도 살면서 튀지 않게, 남들이 하는 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이 부분을 통해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윤재의 말처럼 우리는 평범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르고 그 중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 ▶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독후감을 작성하여 팀원들과 감상을 공유해 본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이 웃으면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식으로 감정을 모르는 아들을 위해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이라는 감정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크리스마スイ브 날, 할머니와 엄마가 살인 당하게 되고 윤재는 홀로 남게 된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윤재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곤이'와 '도라', 그리고 '심 박사'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윤재와 이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 알려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공감이라는 걸 할 수 없다면, 그걸로 인해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말로는 표현 못할 아픔을 느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윤재를 응원하게 되고 나의 마음 또한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Q.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감정 표현 불능증이란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할 순 없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Q. 주인공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책을 읽고 이 질문을 받는 독자라면 누구나 평범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흠이라고 말할 단점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윤재의 흠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흠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흠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재와 나는 다르다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나면 '평범한 사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혼자서 생활하면서 웃고 우는 사람일까? 이 모든 사람이 평범할까? 생각해보면 '평범하다'는 단어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평범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윤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

2019년 5월 9일

참가자대표 : 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목요일의 공감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3일(목요일) / 장 소 : CLC 스터디룸 8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오**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2019. 05. 23</p> <p>◎ 되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능력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 그동안 배운 점과 느낀 점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며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다. <h2 style="text-align: center;">목요일을 매듭지으며</h2> <p style="text-align: right;">오**</p> <p>▷ 공감 능력에 대하여</p> <p>공감이란 소통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소통은 각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에, 서로 마음을 느끼는 데 공감만큼 간단한 것도 없다. 동시에 공감은 참 어렵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탓에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운다. 그렇게 쌓인 공감 능력은 또 다른 사람과 사람을 연결짓는다. 내가 남들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면, 공감은 평생의 숙제일 것이다. 참 어려운 숙제인지라 누구나 어려워한다.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같이 성장하게 되는 듯하다. 남들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나를 잘 알기 위해서도 공감은 필수적이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지만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공감 능력 키우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p> <p>▶ 배운 점 및 느낀 점</p> <p>예전에는 책을 읽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기껏 해봐야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 또한 굉장히 타의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북클럽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독서를 하고 그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p> <p>지성인이라면, 배우고 성장하기를 희망하여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독</p>							

서는 떨 수 없는 덕목이다. 이번 활동이 그것을 한층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줬음에 감사하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방면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더욱이 혼자였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동기들이 있었기에 책임감을 갖고, 재미를 느끼며 활동할 수 있었다. 이것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공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뜻 깊은 경험이었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준다. 독서를 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순간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

▶ 공감 능력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생각.

전에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남의 감정을 나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해가가지 않았다. 그런데 공감에 대한 책을 읽고, 여러 가상의 상황에서 공감해보는 활동을 해나가면서 나에게도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생각하게 된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성적으로 우울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랬구나.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 공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정신차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공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클럽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이번 북클럽 활동 주제를 공감으로 정했을 때 활동을 통해 정말로 상대방과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공감과 관련된 책과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감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를까?' 와 같이 남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주로 했던 것 같은데 북클럽 활동 후 이제는 남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공감하려 해보고 남을 더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공감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신기했고 이번 계기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종소감문

박**

1. 공감 능력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생각

공감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한 부모님, 교수님, 학교 선배, 친구, 동생 등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 전까진 공감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다. '공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단어다보니 내가 제대로 공감하고 있는 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공감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감하다'는 말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간단히 말해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아마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만의 '공감'을 만들어가고 싶다.

2.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보통 책을 읽을 땐 나 혼자서 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럴 때 인터넷에 있는 독후감이나 서평들은 유용했지만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북클럽 활동은 나에게 많은 충족감을 주었다. 특히 친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결성해서 활동 시간에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덕분에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팀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다. 그동안 책을 읽고 따로 독후감을 남기지 않아 읽었던 책을 오랜만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참 생각했던 적이 많다. 하지만 소감문을 쓰는 지금 읽었던 4권의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고 읽으면서 했던 생각들이 생각난다. 북클럽 활동을 통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앞으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

2019년 5월 23일

참가자대표 : 오**